

第9回 環黃海經濟・技術交流會議 會議結果 報告書

2009. 7. 14(火)~17(金)

- 中國 烟台市(Yantai Cit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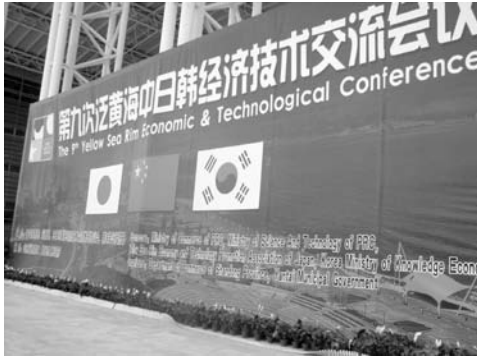
知 識 經 濟 部

韓日經濟協會, 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회의(7.15.)



□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회의(7.15.)



□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정부대표자회의/3국 국장회의(7.15.)



□ 중국측 주최 환영만찬회(7.14.)



□ 중국측 주최 환영만찬회(7.15.)



□ 제5회 환황해 산학관연계 대학 총(학)장 포럼(7.15.)



□ 제3회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7.15.)



□ 제3회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에너지절약 친환경 프로젝트 기술전시(7.15.)



□ 환황해지역 항만교통물류경제협력포럼(7.15.)



□ 환황해 서비스 아웃소싱 설명회(7.15.)



□ 환황해 과학기술포럼(7.15.)



□ 중국상품 구매상담회(7.15.)



□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산업시찰(7.16.)



목 차

I. 회의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3
2.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요	4
3. 회의 개최결과	9
4. 평가 및 후속조치	11
II. 일정 및 대표단	13
1. 제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일정	15
2. 대표단 명단	17
가. 한국 대표단 명단	17
나. 중국 대표단 명단	21
다. 일본 대표단 명단	27
III. 전체회의	31
1. 3국 대표인사	33
2. 제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제안의제	44
3.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개최결과 발표문	48
4. 환황해 과학기술포럼 개최결과 발표문	50
5. 환황해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포럼 개최결과 발표문	52
6. 환황해 항만교통물류 경제협력포럼 개최결과 발표문	54
7.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회의 총괄문	55
IV. 보도자료 스크랩	57

I . 회 의 개 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ASEAN+3 정상회의(1999.11 필리핀, 2000.11 싱가포르)시 한중일 삼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역·투자·기술 등 분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음

- 한국·중국·일본의 환황해지역에 있어서의 경제교류확대를 통해 3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환황해권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의 기반을 구축

※회의 개최 실적

- 2001년 1월 일본 후쿠오카에서의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9년간 한국 794명, 일본 1,028명, 중국 1,200명 합계 3,022명이 참가하여 한중일 3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 활성화를 목표로 경제협력사업을 도출하고 3국 정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시행

-제5회 회의 : '05. 11.28~12.1, 한국 대전(최평락 국제협력투자국장 등 126명 참석, 중 121명, 일 111명)
-제6회 회의 : '06. 9.19~22, 중국 일조시(홍성화 통상협력기획관 등 79명 참석, 중 449명, 일 112명)
-제7회 회의 : '07. 11.26~29, 일본 쿠마모토(홍지인 통상협력기획관 등 119명 참석, 중 85명, 일 290명)
-제8회 회의 : '08. 10.20~25, 한국 인천(서석승 통상협력정책관 등 206명 참석, 중 76명, 일 81명)
-제9회 회의 : '09. 7.14.~17, 중국 옌타이시(서석승 통상협력정책관 등 118명 참석, 중 289명, 일 98명)



2. 제9회 환황해경제 · 기술교류회의 개요

□ 회의 개요

1. 제9회 환황해경제 · 기술교류회의 전체 개요

- 일시 : 2009. 7. 14(화)~17(금) * 7. 16(목) 본회의
- 장소 : 중국 烟台市(Yantai City) 烟台國際博覽中心
- 참석 : 3국 대표, 기업 등 약 510명
 - 우리측 : 지식경제부,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118명
 - * 환황해지역(2시3도) :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충북
 - 일본측 : 규슈경제산업국,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98명
 - * 환황해지역(규슈 7현2정령시) : 福岡・佐賀・長崎・熊本・大分・宮崎・鹿児島縣, 福岡・北九州市
(후쿠오카 · 사가 · 나가사키 · 구마모토 · 벳부 · 미야자키 · 카고시마현, 후쿠오카 · 키타큐슈시)
 - 중국측 : 상무부 · 과학기술부 · 교육부,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약 289명
 - * 환황해지역(3시4성) : 北京・天津・上海市, 遼寧・河北・山東・江蘇省
(베이징 · 톈진 · 상하이시, 랴오닝 · 허베이 · 산둥 · 장쑤성)
- 주최 : 한국 지식경제부, 중국 상무부 · 과학기술부, 일본 규슈경제산업국
- 주관 : 산둥성 상무청, 옌타이시 인민정부, 산둥대학, 옌타이대학

□ 논의 의제

- 회의 성과 및 활동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 주요테마
 - ① 환황해지역의 무역 · 투자의 촉진
 - ② 환황해지역의 과학기술교류의 촉진
 - ③ 환황해지역의 교육, 인적교류의 촉진 등

□ 주요행사 개요

1)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동시통역)

- 일 시 : 2009. 7. 15(수) 09:00~11:50
- 장 소 : 옌타이국제박람센터 2F 6호홀
- 참 석 : 한중일 3국 정부기관, 경제단체, 에너지절약·환경보호기술 및 제품 생산업체, 전문가 및 교수 등 약 204명
- 주 제 : 「경제무역협력 강화,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추진과 금융 위기의 공동대응」 기술 전시와 교류를 통해 3국간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분야의 세부 사례를 공유하고 3국 무역투자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함께 금융위기에 대처

2) 환황해 과학기술포럼(동시통역)

- 일 시 : 2009. 7. 15(수) 13:30~16:50
- 장 소 : 옌타이국제박람센터 2F 5호홀
- 참 석 : 한중일 3국 정부기관, 경제단체, 업계협회, 과학기술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학자 등 약 100명
- 주 제 :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기술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녹색사회 건설」 본 포럼을 통해 현재 한중일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환경보호 관련 신기술의 개발 및 응용정책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3국이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분야에서 이룩한 신공정, 신기술, 신소재를 보급하여 한중일 3국의 에너지절약형 녹색 사회 건설을 촉진

3) 환황해 산학관 연계 대학총(학)장 포럼(동시통역)

- 일 시 : 2009. 7. 15(수) 09:00~17:30
- 장 소 : 옌타이국제박람센터 3F 10호홀
- 참 석 : 3국 41개 대학 총(학)장 등 약 123명

- 주 제 :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에서 산학관 협력과 교류

4) 한국기업의 중국제품 구매상담회

- 일 시 : 2009. 7. 15(수) 09:30~16:30
- 장 소 : 엔타이국제박람센터 2F 3호홀
- 규 모 : 한국 구매·투자 기업 13개사
- 내 용 : 기업 1:1 매칭 상담회

5) 한중일 환황해지역 항만교통물류경제협력포럼(동시통역)

- 일 시 : 2009. 7. 15(수) 09:00~12:20
- 장 소 : 엔타이국제박람센터 2F 5호홀
- 주 제 : 항만 교통체계와 관리수준 제고, 항만산업 발전과 현대화된 항만물류체계 구축, 통관 편리화와 물류협력, 한중일 해저터널과 교통운송 분야의 협력 논의
- 참 석 : 한중일 정부 관련기관 및 단체, 항만교통관리·물류업체 관계자 등 약 110명

6) 환황해 서비스 아웃소싱 설명회(동시통역)

- 일 시 : 2009. 7. 15(수) 14:00~17:00
- 장 소 : 엔타이국제박람센터 2F 6호홀
- 참 석 : 한중일 정부 관련기관, 업계단체, 서비스 아웃소싱 기업 관계자 등 약150명(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시스템 서비스 등)
- 주 제 : 환황해지역 서비스 아웃소싱의 윈윈전략 및 기업 사례발표

7) 환황해 국장회의(순차통역)

- 일 시 : 2009. 7. 15(수) 14:30~16:00
- 장 소 : 엔타이국제박람센터 3F 8호홀
- 참 석 : 3국 정부대표 등 약 20명

- 한국 : 지식경제부 통상협력정책관
- 중국 : 商務部, 과학기술부
- 일본 : 九州經濟産業局長

- 내 용

- 환황해지역의 경제기술 교류·협력 활성화와 회의에서 이끌어낸 공감대의 구체화에 관한 의견 교환
- 이를 통해 한중일 경제협력에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제 1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구상과 주제에 대한 협의
- 환황해지역의 경제·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

8)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회의(동시통역)

- 일 시 : 2009. 7. 16(목) 09:00~11:40
- 장 소 : 옌타이국제박람센터(烟台市 烟台國際博覽中心) 2F 세기홀
- 참 석 : 3국 대표단 약 500명
- 회의내용
 - 환황해 지역의 기술교류, 무역투자, 인재교류 분야의 3국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제시
 -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의 개최결과 보고
 - 환황해 과학기술포럼 개최결과 보고
 - 환황해 산학관 대학총장포럼 개최결과 보고
 - 항만교통물류 경제협력포럼 개최결과 보고
 - 3국 지방정부·기관의 상호협력 및 제안사항에 대한 발표
 - 제10회 회의의 주최국 소개

9) 산업시설 시찰

- 일 시 : 2009. 7. 16(목) 14:00~17:30
- 내 용 : 개최 지역 산업시설 견학(기차페리, 두산(斗山)공정기계 유

한회사(한국투자기업), 엔타이 首鋼電裝 유한회사(일본투자기업) 등 견학

10) 개최지역 주최 환영 만찬

- 일 시 : 2009. 7. 14(화) 18:00~20:00
- 장 소 : Crowne Plaza Hotel 2F Ruby Grand Ballroom(红宝石豪华宴会厅)
- 참 석 : 한중일 전체 대표단

11) 중국 상무부 주최 환영만찬

- 일 시 : 2009. 7. 15(수) 18:00~20:00
- 장 소 : 엔타이국제박람센터 4F Zhong Hua Hall(中华厅)
- 참 석 : 한중일 전체 대표단

□ 엔타이시 개요(烟台市, Yantai City)

- 인구 : 646.72만명(시내 구역의 인구는 168.45만 명)
- 면적 : 1.37만km²(시내의 면적은 2643.6km²)
- GDP : 엔타이시 국내생산총액은 134.3억달러(2002년)
 - 1인당 국내생산총액 : 2,064달러
 - 제1차 산업 16.4억달러, 제2차 산업 69.2억달러, 제3차 산업 48.7억달러
- 주요산업
 - 산동성의 중요한 공업기지 중의 하나
 - 농업 : 경작지 총 면적은 45여 만ha, 농산물 가공기업 1,500여 개 정도
 - 서비스업 : 2000년 제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총 생산량의 32.1%
관광 분야는 국내외 관광객 755.7만 명, 그중 해외 관광객 8.7만 명
- 기타
 - 2008년까지, 엔타이시는 전체 한국투자기업 3,164개를 비준하고 실제투자금액은 44억 달러에 달함. 엔타이시는 대 한국 무역금액이 83.4억 달러에 달

하고 전시의 수출입 금액의 23.8%를 차지. 그 중에서 수입금액은 43억 달러에 달하고 전시의 수입총금액의 30%를 차지. 수출금액은 40억 달러에 달하고 전시의 수출금액의 20%를 차지

- 다국적 기업에 의해 투자가치 최고 도시 8위, 물류업에 가장 적합한 중국 도시 5위로 평가받음(엔타이는 1861년 대외 개방한 중국 최초의 통상항구 중의 하나임)
- 포도주가 유명해 1987년에는 국제 와인협회로부터 '국제포도주성'이라는 칭호를 부여 받음

3. 회의 개최결과

①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절약·환경분야의 협력을 강화

- 글로벌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한·중·일 3국간 국제 공조가 더욱 긴요해지는 상황 하에서 3국 환황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역·투자·기술·인재분야에서의 협력강화가 필요함에 공감
 - 공통의 목표 위해 3국이 힘을 합쳐 비능률을 최소화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
- 금번 회의시 녹색산업협력, 자원순환체계 구축, 경제정보교류 및 기술축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국제환경비즈니스 진흥, 인재육성 등 3국 상호 협력·제안사항으로서 총 12개(한 3개, 일7개, 중2개)의 협력 사항을 제안
 - * 한국 : 녹색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중일 자원순환체계 구축, 대중교통운송 인프라 구축
 - * 중국 상무부(산동성) : 환황해 지역간 협력으로서 산둥 선도구를 제안(중국 환황해지역-한국 경인지역-일본 큐슈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속화)

- * 중국 과기부 : 기업 기술수요와 이전 가능한 기술 및 제품정보 교환 및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 연구지원 메커니즘 개발
- * 일본 : 국제 비즈니스전시회 에코 테크노를 활용한 국제환경비즈니스의 진흥, 환황해권 대학 연계에 의한 인재육성, 환경·리사이클분야의 비즈니스 교류 확대·심화에 대한 협력, 동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환황해 지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집중강의와 연구회의 개최,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의 창설, 환경분야의 경제·기술·인재교류의 활성화

②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과 한중일 과학기술 포럼을 통해 국제 산학관 협력 활성화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

- 세 나라의 공통 관심사항인 에너지 절약과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산학관 연계를 통한 국제 비즈니스 창출에 대해 집중 논의
-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기술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녹색 사회 건설을 주제로, 한중일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환경보호 관련 신기술의 개발 및 응용 정책과 노하우를 교류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2개 분야에 대한 기술발표와 포스터 전시, 상담 실시

③ 3국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 포럼을 통해 산학관 협력과 교류를 촉진

- 한국 카이스트, 중국 산둥대학, 일본 큐슈공업대학 등 3국 45개 대학 123명이 참여하여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에서 산학관 협력과 교류를 주제로 과학기술의 혁신과 연구성과의 실용화, 교육·연구의 국제교류와 협력, 환황해지역의 산학관 협력 촉진방안을 논의

④ 항만산업 발전과 물류협력, 한·중·일 해저터널과 교통운송 분야의 협력을 강화

- 항만교통관리·물류업체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해 항만 교통 체계와 관리수준 제고, 항만산업 발전과 현대화된 항만물류체계 구축, 통관 편리화와 물류협력, 한·중·일 해저터널과 교통운송 분야의 협력 등을 논의

⑤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구매사절단 파견

- 한국수입업협회 주관으로 13개 우리업체가 참가한 구매상담회 개최를 통해 한중 양국 간 교역의 확대균형에 기여(17건 1400만불 상담)

⑥ 산업시설 시찰

- 산업 교류 협력을 위해 두산공정기계유한회사(한국투자기업), 엔타이 首鋼電裝유한회사(일본투자기업), 엔타이 개발구를 시찰

4. 평가 및 후속조치

- 금번 회의를 통해 **환황해 지역간 에너지 절약, 환경분야의 협력 기반이 강화**

* 산학협력 사업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상용화와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Follow-up

-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및 지역경제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 올해 처음 개최된 과학기술 포럼의 정례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 동 회의를 통해 3국이 합의한 사업에 대해 각 기관별 추진 계획·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 * 연례회의 개최 전, 분야별 실무협의(Follow-up 회의)를 통해 합의사항 점검 기능 강화
- 내년 제1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개최

Ⅱ. 일정 및 대표단

1. 제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일정

- 행사장 : 중국 옌타이시 옌타이국제박람센터(烟台市 烟台國際博覽中心)
- 숙박 : 옌타이 난산크라운플라자 호텔(Crowne Plaza, 烟台南山皇冠假日酒店)

일 시	주 요 행 사	비 고
<7. 14(화)> 10:05~10:25 11:30~12:10 18:00~20:00 20:00~21:30	<한국측 대표단> 인천공항→옌타이(烟台)공항 옌타이(烟台)공항→호텔(BUS) <출국> * 14:20~14:35 OZ307 환영 만찬(山東省政府, 烟台市政府 주최) (Crowne Plaza Hotel 2F Ruby Grand Ballroom) 3국 실무자회의 (Crowne Plaza Hotel 2F Aquamarine)	KE 837 紅寶石豪華宴會廳 海寶藍
<7. 15(수)> 09:00~11:50 09:00~17:00 09:00~17:30 09:30~16:30 09:00~12:20 11:30~13:00 13:30~16:50 14:00~17:00 14:30~16:00 18:00~20:00	<한국·중국·일본 3국 대표단>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산학관 협력) 기업상담 및 에너지절약 친환경프로젝트 기술전시 제5회 환황해 산학관연계 대학 총(학)장 포럼 한국기업의 중국상품 구매상담회 환황해지역 항만교통물류경제협력포럼 오찬 환황해 과학기술포럼 환황해 서비스 아웃소싱 설명회 환황해 국장회의(3국 정부) 환영 만찬(중국 상무부 주최)	2F 6호홀 2F 2호홀+로비 3F 10호홀 2F 3호홀 2F 5호홀 2F 5호홀 2F 6호홀 3F 8호홀 4F Zhong Hua hall(中华厅)
<7. 16(목)> 09:00~11:40 14:00~17:30	<한국·중국·일본 3국 대표단>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전체회의) 산업시찰 <귀국> * 15:35~17:50 OZ308	2F 세기홀(世紀厅)
<7. 17(금)> 09:00~09:40 09:40~11:25 11:25~13:40	<한국측 대표단 귀국> 호텔→옌타이(烟台)공항(BUS) 출국수속, 탑승 옌타이(烟台)공항→인천공항	KE 838

제9회 현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중국 엔타이) 일정

7월14일 (화)	<엔타이> 山東省政府, 烟台市政府 주최 환영 만찬(18:00~20:00) 장소: Crowne Plaza Hotel 2F Ruby Grand Ballroom														
7월15일 (수) AM	<엔타이국제박람센터> <table><tr><td>환황해 비즈니스포럼 (09:00~11:50) 주최: 중국 상무부 장소: 2F 6호홀 참가자: 3개국 대학·기업 등 100명</td><td>제5회 환황해 산학관 연계 총(학)장포럼 (09:00~17:30) 주최: 산둥대학, 연대대학 장소: 3F 10호홀 참가자: 3개국 41대학총장 등 110명</td><td>환황해 항만교통물류경제협력포럼 (09:00~12:20) 주최: 중국 상무부 장소: 2F 5호홀 참가자: 항만, 교통, 물류 관계기관, 기업 등 60명</td><td>기업상담 및 에너지 절약 친환경프로 젝트와 기술전시 (09:00~17:00) 주최: 중국상무부 장소: 2F 3호홀 참가자: 약 15명 규모</td><td>한국기업 중국상품구매상담회 (09:30~16:30) 주최: 중국상무부</td></tr></table>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09:00~11:50) 주최: 중국 상무부 장소: 2F 6호홀 참가자: 3개국 대학·기업 등 100명	제5회 환황해 산학관 연계 총(학)장포럼 (09:00~17:30) 주최: 산둥대학, 연대대학 장소: 3F 10호홀 참가자: 3개국 41대학총장 등 110명	환황해 항만교통물류경제협력포럼 (09:00~12:20) 주최: 중국 상무부 장소: 2F 5호홀 참가자: 항만, 교통, 물류 관계기관, 기업 등 60명	기업상담 및 에너지 절약 친환경프로 젝트와 기술전시 (09:00~17:00) 주최: 중국상무부 장소: 2F 3호홀 참가자: 약 15명 규모	한국기업 중국상품구매상담회 (09:30~16:30) 주최: 중국상무부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09:00~11:50) 주최: 중국 상무부 장소: 2F 6호홀 참가자: 3개국 대학·기업 등 100명	제5회 환황해 산학관 연계 총(학)장포럼 (09:00~17:30) 주최: 산둥대학, 연대대학 장소: 3F 10호홀 참가자: 3개국 41대학총장 등 110명	환황해 항만교통물류경제협력포럼 (09:00~12:20) 주최: 중국 상무부 장소: 2F 5호홀 참가자: 항만, 교통, 물류 관계기관, 기업 등 60명	기업상담 및 에너지 절약 친환경프로 젝트와 기술전시 (09:00~17:00) 주최: 중국상무부 장소: 2F 3호홀 참가자: 약 15명 규모	한국기업 중국상품구매상담회 (09:30~16:30) 주최: 중국상무부											
PM	<table><tr><td rowspan="2">환황해 국장회의 (14:30~16:00) 장소: 3F 8호홀 참가: 20명</td><td>환황해 과학기술포럼 (13:30~16:50) 주최: 중국과기부 장소: 2F 5호홀 참가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기술 연구 기관, 기업 등 100명</td><td>환황해서비스아웃소싱설명회 (14:00~17:00) 주최: 중국 상무부 장소: 2F 6호홀 참가자: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외주기업 등 100명</td><td>장소: 상담: 2F 2호홀 전시: 2F 로비</td><td></td></tr><tr><td colspan="4"></td></tr></table>					환황해 국장회의 (14:30~16:00) 장소: 3F 8호홀 참가: 20명	환황해 과학기술포럼 (13:30~16:50) 주최: 중국과기부 장소: 2F 5호홀 참가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기술 연구 기관, 기업 등 100명	환황해서비스아웃소싱설명회 (14:00~17:00) 주최: 중국 상무부 장소: 2F 6호홀 참가자: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외주기업 등 100명	장소: 상담: 2F 2호홀 전시: 2F 로비						
환황해 국장회의 (14:30~16:00) 장소: 3F 8호홀 참가: 20명	환황해 과학기술포럼 (13:30~16:50) 주최: 중국과기부 장소: 2F 5호홀 참가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기술 연구 기관, 기업 등 100명	환황해서비스아웃소싱설명회 (14:00~17:00) 주최: 중국 상무부 장소: 2F 6호홀 참가자: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외주기업 등 100명	장소: 상담: 2F 2호홀 전시: 2F 로비												
중국 상무부 주최 환영 만찬(18:00~20:00) 장소: 4F Zhong Hua hall(中华厅)															
7월16일 (목) AM	<table><tr><td rowspan="2">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회의(09:00~11:40) 주최: 지식경제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과학기술부, 일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추진협의회, 류슈경제산업국 일본 엔타이국제박람센터 2F 세기홀 장소: 엔타이국제박람센터 2F 세기홀 참가자: 3개국 정부·대학·기업 등 400여명</td><td colspan="4"></td></tr><tr><td colspan="4"></td></tr></table>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회의(09:00~11:40) 주최: 지식경제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과학기술부, 일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추진협의회, 류슈경제산업국 일본 엔타이국제박람센터 2F 세기홀 장소: 엔타이국제박람센터 2F 세기홀 참가자: 3개국 정부·대학·기업 등 400여명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회의(09:00~11:40) 주최: 지식경제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과학기술부, 일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추진협의회, 류슈경제산업국 일본 엔타이국제박람센터 2F 세기홀 장소: 엔타이국제박람센터 2F 세기홀 참가자: 3개국 정부·대학·기업 등 400여명															
PM	산업시찰														

2. 대표단 명단

가. 한국 대표단 명단

No.	機關名	職 位	姓名	비고
【團長】				
1	知識經濟部	通商協力政策官	徐錫崇(SEO Seok-Soong)	
【政府機關·經濟團體】				
2	知識經濟部	亞洲協力課 事務官	崔秀雄(CHOI Su-Woong)	
3	知識經濟部	亞洲協力課 主務官	金美賢(KIM Mi-Hyun)	
4	教育科學技術部	國際協力戰略Team長	任昶彬(YIM Chang-Bin)	
5	教育科學技術部	學研產支援課 事務官	金周奉(KIM Joo-Bong)	
6	外交通商部	2等 書記官	鄭漢謨(CHUNG Han-Mo)	
7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智光薰(CHOI Kwang-Hoon)	
8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會長	申德鉉(SHIN Duck-Hyun)	
9	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日本研究Center長	宋成基(SONG Sung-Gi)	전체회의 발표자
10	(社)韓日經濟協會	Team長	趙德卯(CHO Duck-Myo)	
【BusinessForum/科學技術Forum】				
11	大田忠南地方中小企業廳	廳長	河鍾聖(HA Jong-Sung)	비즈포럼 강연
12	大田忠南地方中小企業廳	製品性能技術課 產學研 擔當	李光植(LEE Gang-Sik)	
13	(社)韓國產學研協會	副會長	梁平植(YANG Peyung-Sik)	비즈포럼 대표인사
14	(社)韓國產學研協會	職員	曹禎允(JO Jeong-Yun)	
15	(社)韓國Technomart	理事長	金鐵佑(KIM Chol-Woo)	
16	(社)韓國Technomart	Team長	李炳一(LEE Byeong-Yil)	
17	大德大學	教授	李在奎(LEE Jae-Gyu)	
18	大德大學	職員	金美正(KIM Mi-Jeong)	
19	大田大學校	Center長	徐榮培(SEO Young-Bae)	
20	大田大學校	研究員	張貞賢(JANG Jeong-Hyeon)	
21	C-MAC Co., Ltd.	代表理事	朴種擇(PARK Jong-Taek)	비즈포럼 발표
22	大田保健大學	總括責任者	安祐瑩(AHN Woo-Young)	
23	培材大學校	產學研Consortium Center長	林大永(LIM Dae-Young)	
24	DREAM ENG Co., Ltd.	常務	沈韓植(SIM Han-Sik)	
25	培材大學校	教授	宋政桓(SONG Jeong-Hwan)	
26	培材大學校	教授	李文洙(LEE Mun-Soo)	
27	培材大學校	職員	宋賢晶(SONG Hyun-Jeong)	
28	CIJ Co., Ltd.	代表理事	白種泰(BAEK Jong-Tae)	비즈포럼 발표
29	又松大學校	教授(產學協力團 團長)	金弘基(KIM Hong-Gi)	
30	韓國 Polytechnic IV 大學	職員	辛泰玉(SHIN Tae-Ok)	
31	韓南大學校	產學研Consortium Center 教授	李載廣(LEE Jae-Kwang)	
32	韓南大學校	產學研Consortium Center 教授	崔善雄(CHOI Sun-Wong)	

No.	機關名	職 位	姓 名	비고
33	韓南大學校	產學研Consortium Center 教授	殷誠培(EUN Seong-Bae)	비즈포럼 발표
34	OCTACOMM(韓南大學校)	社長	朴志陽(PARK Ji-Yang)	
35	HANBAT 大學校	產學研Consortium Center長	具本及(KOO Bon-Keup)	
36	HANBAT 大學校	新素材工學部 教授	李澤榮(LEE Taek-Yeong)	
37	HANBAT 大學校	產學研Consortium Center Team長	洪恩英(HONG Eun-Young)	
38	公州大學校	Center長	金元浩(KIM Won-Ho)	
39	公州大學校	行政員	金壽美(KIM Su-Mi)	
40	建陽大學校	中小企業產學協力Center Center長	張允承(CHANG Yun-Seung)	
41	建陽大學校	職員	李慶愛(LEE Keyeng-Ae)	
42	(株)綠水	技術研究所 所長	洪明赫(HONG Myung-Hyuk)	
43	順天鄉大學校	中小企業產學協力Center 所長	金鴻來(KIM Hong-Rae)	
44	順天鄉大學校	中小企業產學協力Center 職員	李相明(LEE Sang-Myoung)	
45	鮮文大學校	產業技術研究所 所長	曹海鏞(CHO Hae-Yong)	
46	浦項產業科學研究院	院長	權五俊(KWON Oh-Joon)	과학기술포럼기조연설
47	浦項產業科學研究院	首席研究員	趙吉元(CHO Kil-Won)	
48	韓國Energy技術研究院	責任研究員	安永洙(AHN Young-Soo)	과학기술사례소개
49	國家淸淨生產支援Center	專門委員	安希慶(AHN Hee-Kyung)	과학기술사례소개
50	國家淸淨生產支援Center	研究員	安惠娟(AHN Hye-Yeon)	
51	三益 Tech. 技術研究所	研究所長	李瑛憲(LEE Young-Hee)	과학기술사례소개
52	韓日經濟協會	社員	洪昭榮(HONG So-Young)	
【總長Forum】				
53	京畿大學校	副總長	李愚理(LEE Woo-Rhee)	
54	京畿大學校	對外協力處長	李憲大(LEE Hun-Dae)	
55	京畿大學校	國際交流部長	金永德(KIM Young-Duk)	
56	德成女子大學校	對外協力處長	權汶一(KWON Moon-il)	
57	德成女子大學校	職員	郭曉珍(KWAK Hyo-Jin)	
58	東義科學大學	副總長	金永燾(KIM Young-Do)	
59	明知大學校	副總長	金炳魯(KIM Byung-Ro)	
60	培材大學校	總長	鄭淳勳(CHUNG Soon-Hoon)	
61	培材大學校	對外協力處長	蔡耕華(CHAE Kyung-Hwa)	
62	培材大學校	職員	李慧聖(LEE Hye-Seong)	
63	培材大學校	職員	金讚基(KIM Chan-Ki)	
64	西江大學校	對外副校長	柳基豐(YOO Ki-Pung)	
65	崇實大學校	總長	金大根(KIM Dae-Keun)	
66	崇實大學校	對外協力處長	李仁聖(LEE In-Sung)	
67	崇實大學校	國際協力科長	金度淵(KIM Doh-Yeon)	
68	亞洲大學校	總長	徐文濩(SUH Moon-Ho)	
69	亞洲大學校	對外協力副總長	朴晚珪(PAK Man-Ghyu)	

No.	機關名	職 位	姓 名	비고
70	亞洲大學校	國際協力部長	李東烈(LEE Dong-Yeol)	
71	亞洲大學校	職員	尹丁鏞(YOON Jeong-Yong)	
72	仁川大學校	副總長	蔡 勳(CHAE Hun)	
73	仁川大學校	對外協力處長	全永雨(JUN Young-Woo)	
74	仁川大學校	教務處長	柳仁模(LEW In-Mo)	
75	仁川大學校	教授	金 鎬(JIN Gao)	
76	全州大學校	總長	李南植(LEE Nahm-Sik)	
77	全州大學校	國際教育交流院長	高鳳成(KOH Bong-Sung)	
78	全州大學校	職員	李秀珍(LEE Su-Jin)	
79	翰林大學校	總長	李榮善(LEE Young-Sun)	
80	翰林大學校	對外協力處長	安東奎(AHN Dong-Gyu)	
81	Hanbat大學校	總長	薛東浩(SUL Dong-Ho)	
82	Hanbat大學校	企劃弘報處長	金明洙(KIM Myung-Soo)	
83	Hanbat大學校	秘書室長	宋康燮(SONG Gang-Seob)	
84	Hanbat大學校	企劃弘報處	朴炫奎(PARK Hyun-Gue)	
85	Hanbat大學校	中國語科 教授	南基琬(NAM Kee-Wan)	
86	湖西大學校	企劃處長	閔丙憲(MIN Byeong-Heon)	
87	韓國科學技術院(KAIST)	KAIST EMDEC 所長	金昊起(KIM Ho-Gi)	
88	浦項工科大学校(POSTECH)	副總長	李在成(LEE Jae-Sung)	
【港灣交通物流Forum】				
89	京畿平澤港灣公社	社長	徐廷皓(SUH Jung-Ho)	2세션 발표자
90	東北亞共同體研究會	會長	李承律(LEE Seung-Ryul)	
91	Hansol Engineering Consultant Co.,Ltd.	社長	金漢龍(KIM Han-Yong)	4세션 발표자
92	京畿開發研究院	副院長	趙應來(CHO Eung-Rae)	3세션 발표자
93	崇實大學校	教授(日語日本學科)	申章澈(SHIN Jang-Churl)	
94	九州看護福祉社大学	教授	李玄玉(LEE Hyun-Ok)	
95	韓國海洋水產開發院	國際物流研究・投資分析Center 副研究委員	李性雨(LEE Sung-Woo)	1세션 발표자
96	韓國海洋水產開發院	港灣開發研究Team 研究委員	金範中(KIM Beom-Jung)	
97	S&O Financial Consulting	董社長	吳炳云(OH Byung-Woon)	
98	韓日經濟協會	部長	金正鎬(KIM Jung-Ho)	
【Outsourcing 說明會】				
99	韓國Software產業協會	副會長	朴敬哲(PARK Kyung-Chul)	발표자
100	韓國Software產業協會	責任研究員	徐京德(SEO Kyung-Deok)	
【購買使節團】				
101	Mido Corp.	代表	李珠泰(LEE Ju-Tae)	
102	Daichung Industria Corp.	代表	洪思運(Hong Sa-Wun)	
103	Green Chem Corp.	代表	任憲植(YIM Hern-Sik)	
104	Mirae21IndustrialCo.,Ltd.	會長	文明淑(MOON Myeng-Sook)	

No.	機關名	職 位	姓名	비고
105	SAMCHULLY Trading.Co.,Ltd.	代表	朴鎮基(PARK Jin-Gi)	
106	Segye Scientific Co.Ltd.	代表	金炳局(KIM Beung-Kuk)	
107	Unitrans Line	次長	張炯豪(JANG Dong-Ho)	
108	R&TECH Corporation	監事	林相潤(LIM Sang-Yoon)	
109	T&C Korea	代理	石藝林(SUK Ye-Lim)	
110	T&C Korea	社員	尹載喜(YOON Jae-Hee)	
111	T&H International	代表	金永凡(KIM Young-Beom)	
112	World Steel Co.,Ltd.	代表理事	黃起龍(HWANG Ki-Yong)	
113	Yongjin logistics	社長	金演星(KIM Yeon-Sung)	
114	Boo Young Machinery Co.,Ltd.	會長	李永達(RHEE Young-Dal)	
115	韓國輸入業協會	部長	崔英德(CHOI Young-Deuk)	
116	韓國輸入業協會	代理	姜熙燦(KANG Hee-Chan)	
【通譯】				
117	通譯	中國語	延東淑(YEON Dong-Sook)	
118	通譯	日本語	金惠媛(KIM Hae-Won)	

나. 중국 대표단 명단

来宾及讲师 (5人)

陈 健 商务部 副部长
陈 光 山东省 副省长
吕 侃 发展改革委环资司
 教育部
李锦莹 (女) 中国物流采购联合会物流规划研究院 院长

商务部代表团 (6人)

宋耀明 商务部亚洲司 副司长
罗晓梅 商务部亚洲司 处长
尹 刚 商务部亚洲司 商务一秘
蒋 昕 商务部亚洲司 商务三秘
韩 轶 商务部亚洲司 官员
韩彦博 商务部亚洲司 官员

山东省分团 (16人)

阎兆万 山东省商务厅 副厅长
孟建新 山东省商务厅 巡视员
吕 伟 (女) 山东省商务厅贸发处 处长
刘为兵 山东省商务厅外资处 处长
张连峰 山东省商务厅开发区处 处长
崔洪光 山东省商务厅亚洲一处 处长
贾继庆 山东省政府驻韩国经贸代表处首席代表
秦海峰 山东省商务厅贸发处 副处长
于乃胜 山东省商务厅外资处 副处长
魏文胜 山东省商务厅开发区 主任科员
隋玉卿 (女) 山东省商务厅亚洲一处 主任科员
孔 涛 山东省商务厅亚洲一处 主任科员
周向军 山东省商务厅亚洲一处 主任科员
蔡培安 山东省商务厅贸发处 副主任科员
马 俊 山东省商务厅亚洲一处 科员
王培力 (女) 山东省商务厅亚洲一处 科员

烟台市分团 (39人)

张江汀 烟台市委副书记、市长
向和平 烟台市委常委、副市长
张焕伟 烟台市人民政府 副秘书长

张冰开	烟台市人民政府 副秘书长
张前程	烟台市人民政府 办公室副主任
张行如	烟台市政协 副主席
王秀勋	烟台市外经贸局 副局长
曲建利	烟台市外经贸局 副局长
王军力	烟台市外经贸局 党委书记
祁小青	烟台市外经贸局 副局长
凌立秋	烟台市外经贸局 副调研员
王洪斌	烟台市外经贸局 副调研员
侯 杰	烟台市外经贸局 科长
赵新志	烟台市外经贸局 科长
张 丹	烟台市外经贸局 科长
张 淼	烟台市外经贸局 科长
宋 军	烟台市外经贸局 科长
王林超	烟台市外经贸局 办公室副主任
刘志坚	烟台市外经贸局 科长
杨坤元	烟台市外经贸局 科长
姜英松	烟台市外经贸局 科长
于天法	烟台市外经贸局 副科长
杜福堂	烟台市港航局 局长
吴东有	烟台市港航局 副局长
王相东	烟台市港航局 办公室副主任
李瑞庆	烟台市科技局 副局长
曲 正	烟台市科技局
乔玉晶	烟台市经贸委 副主任
王培勇	烟台市经贸委 科长
崔建民	烟台市贸促会 副会长
吕 杰	烟台市贸促会 科员
丛 健	烟台市信息产业局 副局长
张 娜	烟台市信息产业局 科长
王 瑞	烟台市环保局 副局长
姜 波	烟台市环保局 科员
张祖峡	烟台市投资促进局 副局长
宋毅俊	烟台市投资促进局 副局长
姜文韬	烟台市外商服务中心 主任
曲剑波	烟台市外商投资企业协会 副秘书长

北京市分团（8人）

程玉华（女）北京市商务委员会 副主任

张华雨 北京市商务委员会外经处 副处长
李 劲（女）北京服务外包企业协会 副秘书长
赵晓敬（女）临空经济区板桥创意天承投资发展中心副总经理
 临空经济区板桥创意天承投资发展中心
 北京软通动力信息技术有限公司
 北京海辉高科软件有限公司
 北京博彦科技有限公司

上海市分团（6人）

庞春和 上海市商务委员会 副调研员
金 颖（女）上海市商务委员会 副处长
丁保银 上海能效中心 主任
叶文彪 上海节能服务中心 主任
李恒占 洋山港保税区管委会经济贸易处 处长
钱峥丞 洋山港保税区管委会经济贸易处

天津市分团（10人）

天津市商务委员会 副局级
天津市商务委员会
天津市服务外包企业

河北省分团（16人）

史玉强 河北省商务厅 副厅长
任卓平（女）河北省商务厅投资服务处 副处长
崔锦玉（女）河北省商务厅投资服务处 主任科员
唐 伟（女）河北省投资促进事务局
马兴旺 廊坊经济技术开发区管委会 副主任
张 平 廊坊经济技术开发区招商合作局 局长
刘洪柱 秦皇岛经济技术开发区管委会 副主任
张伟忠 秦皇岛开发区招商局 副局长
魏 巍 保定国家高新区管委会 项目主管
王雪增 曹妃甸新区管委会 副主任
赵 宇 曹妃甸新区经济发展局 科员
张吉伦 渤海新区经济发展局 副调研员
周砚军 渤海新区经济发展局投资服务中心 主任
孔祥凤 保定华仿科技有限公司 销售经理
李 光 廊坊信和软件投资有限公司 总经理
荣艳萍（女）廊坊信和软件投资有限公司 副总经理

江苏省分团（11人）

吴晓晶 江苏省外经贸厅 副巡视员
施 卫 江苏省外经贸厅对外合作处 处长
孙 洁（女）江苏省外经贸厅对外合作处 副处长
南京市外经贸局处长
南京市服务外包企业3人
太仓市外经贸局副局长
连云港开发区企业3人

辽宁省分团（19人）

王景明 辽宁省外经贸厅 副厅长
辽宁省外经贸厅
辽宁省各开发区

科技部分团（120人）

王启明 科技部国际合作司 参赞
徐 捷 科技部国际合作司亚非处 处长
文 钧 科技部国际合作司亚非处 副处长
武 平 科技部高新技术发展及产业化司
能源与交通处 处长
肖 蔚 科技部国际合作司亚非处 项目官员
李 缨 科技部中国科学技术交流中心日本处 处长
吴香雷 科技部中国科学技术交流中心日本处
杨瑞月 河北省科技厅国际合作处 处长
董延智 河北省科技厅国际合作处 调研员
梁 超（女）河北省科技厅国际合作处 副主任科员
王海建 河北省邯郸市科技局 局长
马千领 河北省邯郸市科技局 副局长
张 亮 河北省邯郸市科技局 主任科员
蒋志彬 河北省邯郸市科技局 工作人员
郭 伟 河北正源凯信新能源科技有限公司 营销总监
李思敏 河北工程大学 教授
马 强 河北工程大学 讲师
刘新东 石家庄市科技局 处长
徐秀芳（女）石家庄市科技局 科员
刘 俊 河北省林业科学研究院 院长
王玉忠 河北省林业科学研究院 副院长
赵京献 河北省林业科学研究院 高级工程师
李向军 河北省林业科学研究院 博士
林 霞（女）浙江省亚热带作物研究所 副所长
钱仁卷 浙江省亚热带作物研究所
陈自拯 桐乡市双杰照明科技有限公司

辛婷芬（女）桐昆集团股份有限公司
 李飞宇 平阳县科学技术局 副局长
 吴美秋（女）广天集团有限公司 董事长
 胡小秋（女）浙江伊露莲家居用品有限公司 董事长
 周建尧 温州威信证章有限公司 董事长
 姜小秋（女）平阳县昆阳镇政府 副镇长
 阮南英（女）平阳县昆阳镇政府 副主任
 周拥军 浙江张臣木艺有限公司 董事长
 陈贤明 浙江平柴泵业有限公司 董事长
 黄春月（女）浙江高翔通信设备有限公司 董事长
 池方燃 浙江乔治白服饰有限公司 董事长
 黄荣弟 浙江克莱顿科技有限公司 董事长
 陈传安 浙江安康汽车零部件有限公司 董事长
 陈爱红（女）温州耐拉力服饰有限公司 董事长
 孙 琦 青岛乾运高科新材料有限公司 总经理
 纪勋尚 青岛海永盛发展有限公司 总经理
 郝代杰 青岛宏丰氟硅科技有限公司 办公室主任
 纪玉梁 青岛君岭环保纸业股份有限公司 总经理
 纪奕春 青特集团有限公司 副总裁
 纪国清（女）青特集团有限公司 副主任
 张维福 城阳区科技局对外计划服务科 科长
 鹿泉宝 胶州市李哥庄镇人民政府 组织委员
 于 波 胶州市李哥庄镇人民政府投资服务中心 主任
 吴国华 青岛格鲁博工艺品有限公司 经理
 王和忠 浙江昌泰科技股份有限公司 副总经理
 欧建有 浙江昌泰科技股份有限公司 副总经理
 吴祖燊 浙江省明矾石综合利用研究所 所长
 李齐春 浙江省明矾石综合利用研究所 副总工程师
 刘海峰 上海市科委国际合作处 副处长
 鲁礼瑞 上海市技术交易所 副总裁
 张心怡（女）上海市技术交易所国际部 部长
 刘志东 天津中医药大学 副研究员
 陈金琦 天津企业管理培训中心 主任
 冯 冬 天津企业管理培训中心 办公室主任
 司 机 天津企业管理培训中心
 韩 颖 天津科委合作处 副处长
 白应杰 吉林省科技厅国际合作处 处长
 丁 盛 铁岭市高新技术创业服务中心 副主任
 王绪才 辽宁天润环保科技有限公司 总经理
 郭长久 辽宁博联过滤有限公司 业务经理
 张乃强 调兵山繁兴鹿业有限责任公司 经理

宋德坤 辽宁美麟集团有限公司
Richard Lee 辽宁杜尔环保科技有限公司、美国杜尔化工
董事长、总经理
韩蓓莹（女）辽宁杜尔环保科技有限公司 市场部经理

大学校长论坛（33人）

徐显明 山东大学 校长
娄红祥 山东大学 副校长
修光武 山东大学 处长
孙凤收 山东大学 副处长
刘明利 山东大学 科长
崔明德 烟台大学 书记
房绍坤 烟台大学 校长
韩晓玲（女）烟台大学 副校长
白世俊 烟台大学 处长
梁茂广 烟台大学 副科长
于 涛 山东师范大学 副校长
张敬东 山东师范大学外事处 处长
韩 锋 山东建筑大学 副校长
傅传国 山东建筑大学科技处 处长
舒歌群 天津大学 副校长
李 锵 天津大学外事处 副处长
杨庆新 天津工业大学 校长
姜亚明 天津工业大学外事处 处长
丁子信 潍坊学院 副校长
单振涛 潍坊学院外事处 副处长
Gao Hai Yan 南开大学国际学术交流办公室 主任
Chong Jian 南开大学国际学术交流办公室 副主任
邬大光 厦门大学 副校长
李承律 延边大学科技学院 副校长
朴相日 延边大学科技学院外事处 处长
付石友 哈尔滨工业大学（威海）副校长
夏清文 哈尔滨工业大学（威海）外事处 处长
Li Qing Shan 鲁东大学 校长
Sun Guiting 鲁东大学外事处 处长
Xu Guochun 鲁东大学 副处长
郭东明 大连理工大学 常务副校长
赵明山 大连理工大学科技处 处长
孙红新 大连理工大学 国际合作项目经理

다. 일본 대표단 명단

No	団体・会社名	役職	氏名
【団長】			
1	(社)九州経済連合会	会長 (協議会 会長)	松尾 新吾
【顧問】			
2	九州経済産業局	局長 (協議会 顧問)	橘高 公久
【講師】			
3	北九州市	市長	北橋 健治
4	(株)麻生鉱山 (K-RIP)	代表取締役社長 (K-RIP 国際ビジネス部会長)	坂田 昌己
5	九州電力(株)	海外事業部長	掛林 誠
6	清本鐵工(株)	代表取締役社長	清本 英男
7	北九州市	港湾空港局整備部長	大庭 隆一
8	福岡市	港湾局理事	阪下 進
9	九州旅客鉄道(株)	元会長	石井 幸孝
10	日本通運(株)	亜州・太平洋地域総括室 (中国室)次長	近藤 功
11	九州経済産業局	資源エネルギー環境部 次長	古賀 博三
12	九州電力(株)	土木部技術戦略グループ長	相良 敏行
13	九州大学	特任教授	小寺山 亘
14	アドバンストマネージメントコンサルティング(株)	代表取締役社長	内田 守
15	T.R.E CHINA 創述軟件有限公司	董事長	金 英姬
【協議会】			
16	(社)九州経済連合会	専務理事	惣福脇 亨
17	(社)九州経済連合会	総務国際部長	廣瀬 香
18	九州経済産業局	国際部国際事業課長	小井手 博之
19	福岡県	商工部国際経済観光課 主任主事	高田 史郎
20	福岡県	上海事務所 所長	鹿毛 久史
21	長崎県	産業労働部産業政策課 総括課長補佐	山下 三郎
22	熊本県	商工観光労働部くまもとブランド推進課 参事	藤芳 純
23	宮崎県	商工観光労働部商業支援課 副主幹	須志田 泰明
24	福岡市	港湾局計画部計画課事業計画係	鈴木 正隆
25	福岡市	行政研修員	堀 浩信
26	北九州市	産業経済局 産業振興部 貿易振興課 国際ビジネス担当係長	千々和 圭輔
27	北九州市	港湾空港局整備部計画課 係員	小野 彰次郎
28	(財)九州地域産業活性化センター	開発部長	本田 和男
29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九州支部	人材支援部人材支援課 課長代理	美野 洋二
30	(財)北九州産業学術推進機構	中小企業支援センター長	影山 隆雄
31	(財)西日本産業貿易コンベンション協会	専務理事	安藤 英和
32	(財)西日本産業貿易コンベンション協会	事業部事業第二課	衛藤 弘之
【参加企業等】			
33	NPO法人アジア人材・技術協力機構	専務理事	光内 清
34	九州電力(株)	海外事業部副部長、兼、海外事業計画グループ長	力久 洋
35	九州電力(株)	海外事業部海外事業交流グループ 副長	舟越 節彦
36	九州電力(株)	海外事業部付 副長	高田 哲史
37	九州電力(株)	土木部技術戦略グループ 課長	鶴田 久雄
38	九州電力(株)	土木部技術戦略グループ 副長	上妻 正典
39	九州電力(株)	会長秘書	熊懷 達夫
40	清本鐵工(株)	取締役製品事業本部長	清本 邦夫
41	清本鐵工(株)	総務課員	鎌田 賢治
42	(財)国際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	所長	谷村 秀彦

No	団体・会社名	役 職	氏 名
43	国土交通省九州地方整備局	港湾空港部港湾物流企画室国際物流係長	星倉 淳一
44	国土交通省九州地方整備局	港湾空港部港湾計画課海岸・環境係	時任 博之
45	住金物産(株)	常務執行役員 九州支店長	間地 達雄
46	住金物産(株)	食料事業部中国主席代表	渡辺 康晴
47	(株)にしけい	執行役員 技術本部長	富田 純一
48	松田都市開発(株)	常務取締役	坂野 直樹
49	三井物産(株)	九州支社副支社長	新田 敏之
50	(株)山口銀行	青島支店 支店長	兼重 清史
51	三菱商事(株)	九州支社 業務経理部業務チームリーダー	池田 敦
52	青島富博系統工程有限公司	総経理	崔 健
53	青島信頼諮詢服務有限公司	総経理	李 海洲
54	青島信頼諮詢服務有限公司	営業部	朱 明
55	大連日本環境省エネテクノパーク	董事長	高木 文平
56	三井物産(青島)有限公司	総経理	加藤 仁志
57	T.R.E CHINA 創述軟件有限公司	青島総経理	康 凱
58	T.R.E CHINA 創述軟件有限公司	総経理	陶 伝鋼
【環黄海 学長フォーラム】			
59	大分大学	学長	羽野忠
60	"	副学長・理事	佐藤誠治
61	"	国際交流課 係長	小森祐子
62	鹿児島大学	理事(研究・社会連携)	前田芳實
63	"	研究国際部長	南須原正純
64	九州工業大学	学長	下村輝夫
65	"	総務課長	潮田尚次
66	"	産学連携推進センター 教授	佐伯心高
67	"	産学連携推進センター 准教授	石丸晃
68	九州産業大学	学術研究推進機構副機構長	松永勝也
69	"	学術研究推進機構産学連携支援室 室長	岡本徹
70	九州大学	副学長	安浦寛人
71	"	工学研究院 准教授	名垣真一
72	"	国際交流部留学生課	三島大蔵
73	熊本大学	学長	谷口功
74	"	イノベーション推進機構 教授	曾我一正
75	"	国際課長	菊地晋一
76	佐賀大学	副学長・理事	西河貞捷
77	"	学術研究協力部次長兼国際課長	光武勲
78	長崎大学	理事、副学長	調 漸
79	"	副学長、大学院医歯薬学総合研究科教授	小路武彦
80	福岡工業大学	総合研究機構 事務長	安部良幸
81	"	総合研究機構長	松尾一壽
82	宮崎大学	学長	住吉昭信
83	"	副学長	菅沼龍夫
84	"	学術研究協力部長	水井義武
85	福岡大学	学長	衛藤卓也
86	"	研究推進部長・理学部教授	宮本康彦
87	"	研究推進部教授、産学官連携センター長	角中正博
88	"	工学部資源循環・環境グループ教授	樋口壯太郎
89	"	産学官連携センター 課長	森美智雄
90	信州大学	経済学部 教授	樋口一清

No	団体・会社名	役 職	氏 名
91	〃	経営大学院 特任教授	大野雄三
92	東海大学	農学研究科長	荒木朋洋
93	〃	九州企画調整課 課長補佐	佐藤理裕
【事務局】			
94	(社)九州経済連合会	総務国際部 課長	矢野 佳秀
95	九州経済産業局	国際部国際事業課国際事業係長	田口 賀徳
【通訳・添乗】			
96	通訳	中国語通訳	中 恵麗
97	通訳	韓国語通訳	辛 鍾美
98	日通旅行		真崎 亨

Ⅲ. 전체회의

(1) 천지엔(陳建) 중국상무부 부부장

한국, 일본 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산둥성 인민정부 리쵸오치엔(李兆前) 부성장님, 중국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 상무부를 대표하여 이번 회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중일 3국의 공동 노력하에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이미 과학기술, 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오늘까지 8회째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일본 큐슈지역, 한국 환황해 지역의 5개도와 4개시, 그리고 중국 환황해 지역 7개성, 도, 시의 500여 명의 대표분들이 아름다운 옌타이시에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데에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3국간의 경제기술협력의 눈부신 성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중일 3국은 서로 이웃나라로서 문화상으로 근접하고 세계 경제 속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국적은 서로 다르지만 경제발전을 가속화하여 국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 경제번영과 발전을 이룩하자는 중요한 사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리고 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한일간 성숙된 파트너십이 끊임없이 심화, 발전하는 속에 저희는 작년 말 3국 정상 회의에서 3국 파트너 관계가 처음으로 확립되어 3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도록 하고 서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새로운 시점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보았습니다.

한중일 3국의 협력 역사를 되돌아보면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여 경제 통상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한중일 3국의 공동 희망과 이익입니다. 지리상의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생산요소를 지닌 3국은 환황해 지역을 기초로 한 한중일 서브지역의 경제협력이 자원면에서의 유사성을 경제적 유사성으로 전환하여 본 지역의 경제교류를 강화하여 경제전면적으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플러스가 되어 본회의의 강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이 회의가 설립된지 9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에 규모와 관련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여 3국, 환황해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매커니즘이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3국간 교역 총액은 총 6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8년 말까지는 5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8년 동안 3배나 증가했습니다. 2001년 일본, 한국기업이 대중실질투자 누계금액은 446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09년 7월말까지 1000억불을 넘었습니다. 2001년 3국 환황해 지역간 협력 프로젝트는 별로 없었는데 이러한 본회의의 매커니즘에 힘입어 한중일 환황해 10개 도지사의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청도 텐진시와 일본 기타큐슈시 사이에 순환형도시 건설 협력을 하고 있으며 중국 대련시와 일본 기타큐슈지역 간 산업교류센터, 중국 일조시와 일본 후쿠오카현과 아시아순환사회 창조과정훈련프로젝트를 비롯한 우수한 협력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인적 자금과 기술 이전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와 경제침체압력을 받고 협력을 어떻게 강화하는가는 한중일 3국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확실히 이행하여 공동 조치를 취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여 위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 지역의 특성과 우의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물류 유통, 항구,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본 매커니즘에서 기업간의 구체적 협력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 연구를 강화하여 아시아 경제회복과 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표 여러분, 동료 여러분, 이번 회의는 과거를 총괄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저는 이번 회의 개최 주최지인 산둥성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산둥성은 중국 동부의 경제도시이며 한국, 일본과 서로 바라보고 환황해 경제권에서 우월한 지리적 우세를 갖고 있어 산둥성 경제발전 비전과 환황해 경제권을 밀접하게 결합시켰습니다. 환황해 경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해 중국의 창구로서 산둥성은 한국, 일본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며 그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금년 8월달 3국 정상회의가 텐진시에서 열립니다만 환황해회의의 개최는 경제 무역분야에서 매우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노력하고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협력 체제를 다시 정비하여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 분야를 모색하여 환황해경제기술교류협력체제를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3국 협력과정에서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의 원만한 성과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2) 리자오치엔(李兆前) 산둥성 부성장

존경하는 한국, 일본 귀빈 여러분, 천지엔(陳建) 부부장님, 숙녀, 신사 여러분, 한중일 3국에서 오신 귀빈들과 함께 엔타이에 모여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 전체회의에 참가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산둥성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회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그동안 산둥성 경제발전을 성원해오신 국내외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3국 교류와 협력에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환황해 서브 지역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3국 각계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산둥성은 이 플랫폼을 통하여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우위를 다지며 협력을 촉진하였습니다. 특히 금융 위기라는 배경하에서 이번 회의의 개최는 3국이 위기에 대처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이 미래를 지향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산둥성은 중국의 연안부의 하나의 소도시로서 작년 하반기 이래 금융위기의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다사다난한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여 산둥성은 일련의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는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을 하여 발전 잠재력을 다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개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산둥 경제는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성장액은 6,956억 위안으로 10.8% 성장하였으며, 투자규모 완성액은 5,736.4억 위안으로 22.3%, 사회소비품 총소매액은 4,830.3억 위안으로 17.8%, 지방재정수입 900.4억 위안으로 5.9% 성장했습니다.

산둥성은 환황해 지역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한중일경제·기술교류 협력의 참여자와 수혜자의 하나입니다. 지금 산둥성과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국제금융계의 영향으로 새로운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했지만 기회와 도전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3국 협력의 기초가 튼튼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다지기만 하면 협력의 앞날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산둥성은 반도 해양경제구역, 황하 삼각주 고효율생태시범구역과 첨단산업집적구역 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10대 산업조정진행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철도고속도로, 항만, 도심부의 전차 등 대형 기초건설프로젝트와 일련의 하이테크 및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 전략의 실시와 중점건설프로젝트의 추진은 일본, 한국 기업과 산동성과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각측과 함께 손을 잡고 환황해지역경제·기술협력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산동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장지양탕(張江汀) 엔타이시 시장

존경하는 천지엔(陳建) 부부장님, 리자오치엔(李兆前)부성장님, 존경하는 마츠오 신고(松尾 新吾) 회장님, 서석숭(徐錫崇) 통상협력정책관님, 지도자 여러분, 신사, 숙녀여러분 안녕하세요?

제9회 한중일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14일 엔타이시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따라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엔타이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회의에 참석하신 지도자 및 내빈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주신 사회 각 계층 인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엔타이시는 14개 연해 지역 개방도시의 하나입니다. 엔타이시는 산과 바다와 접하고 있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기후가 아주 적절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제포도주 도시입니다. 전체 총 면적은 2.37만 평방미터이며 총 인구는 650만 명이며 909km의 해안선과 2.5만 평방km의 해역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 개방이래 엔타이시의 경제 사회의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08년 GDP는 3,430억 위안에 달했으며 경제 규모는 산동성의 제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중도시 중에서 톱 20으로 진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방의 재정수입 및 GDP도 성장했습니다. 대외 개방은 엔타이시가 가장 큰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외 개방은 엔타이시의 발전동력입니다. 이런 개방에 힘입어 국제 사회와 경제기술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외향형 산업발전체계 및 국제아시아의 발전 모델을 형성시켰습니다. 특히 환황해 지역 각 도시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은 이미 엔타이시의 가장 중요한 경제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엔타이에서 투자한 누계 금액은 44.3억 달러에 달합니다. 2008년도 한국과 엔타이시의 교역액은 83.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중 엔타이시 수출, 수입은 각각 40.4억, 43.1억 달러에 달해 모두 20%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일본 기업의 대엔타이시 투자금액은 13.8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8년도 일본과 엔타이시 교역금액은 54.5억 달러에 달했고 이중에서 엔타이시 수출, 수입은 각각 31.3억 달러, 23.2억 달러에 달하여 30%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글로벌화에 따라서 지역경제협력이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대부분 국가와 지역간 각종 형식의 지역경제협력에 참가하여 관련 지역 무역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환황해 지역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환태평양 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발전 활약이 가장 돋보인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각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상호 실력 및 경쟁력을 고조시키고 또는 동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고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이번 제9회 한중일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경제금융위기 하에 더욱 교류를 촉진하고 원-원 발전을 추구하여 매우 유리한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환황해 지역의 하나의 중요 도시로서 엔타이시는 각 분야에서 각 도시와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협력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노력할 것입니다.

지도자, 내빈 여러분, 환황해 지역은 활기가 가득찬 지역입니다. 희망과 아름다운 전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최근 몇 년간 각층의 공동 노력으로 이 지역의 경제기술협력에 있어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21세기는 협력의 윈윈 시대로서 엔타이시는 환황해지역 각 도시와 함께 본 지역 협력기술 시범사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환황해지역, 심지어 아시아 지역 공동 번영과 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의 원만한 성원을 기원하면서 지도자 여러분들이 엔타이시에 머무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왕치밍(王啓明) 중국 과학기술부 참사관

존경하는 산둥성 리자오치엔(李兆前) 부성장님, 엔타이시 장지앙팅(張江汀) 시장님, 송야오밍(宋耀明) 부시장님, 마츠오 신고(松尾 新吾) 회장님, 서석송(徐錫崇) 정책관님, 대표 여러분, 한중일 3국의 공동 노력아래 산둥성 상무부, 과기부, 그리고 엔타이 시민 정부의 세심한 준비 끝에 제9회 한중일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엔타이시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중국 과기부를 대표하여 이번 회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번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우리

동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하반기 이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금융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 체제와 많은 국가들의 실질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면서 국제 무역이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침체하였으며 한중일 3국 경제도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한중일의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를 조정하며 지역 내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경제무역과 과학기술의 조율을 강화하며 3국이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번에 한중일 3국의 경제, 과학기술, 산업, 학계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조치를 함께 논의하고 지역내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 전략을 의논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는 과학 기술의 경제 발전에 대한 지지와 선두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고 과학 기술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민족의 혁신 능력의 향상을 국가 발전의 돌파구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위기 대처에 과학 기술이 확실한 기여를 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 산업의 진척을 위해 과학기술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철강, 자동차, 섬유, 화학 등 10개의 핵심 산업 조정과 진행 계획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과학기술의 혁신에 의거하여 산업경쟁력의 혁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16개의 전략적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확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민영비행기의 제조, 신에너지의 개발, 에너지절약기술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기술 혁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의 자주적 혁신 능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과학 혁신으로서의 주체를 중요시합니다.

네 번째, 하이테크 기술의 클러스터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약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 산업 구역과 하이테크 산업 기지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도입을 강화하고 더욱더 많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투입은 25%증가했습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에너지절약과 배출삭감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미국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에너지 발전의 기술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소비의 삭감은 중국 측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상무부장관과 에너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청정에너지 중·미 연합 R&D센터를 건설하자는 협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신에너지 발전, 고효율 에너지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정책을 조정하였습니다. 적당한 발전에서 적극적인 발전으로 다시 대대적인 발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목표는 5년 이내 몇 배나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까지 중국의 풍력 발전은 1억kW에 달하고 태양광 발전은 1,000만kW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소비 비율은 모든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15%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신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절약, 감축, 배출 등 기술면에서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에서 참고할만한 점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대규모 재정 능력과 광활한 시장은 역시 선진기술의 활용을 위한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R&D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한중일 3국은 과학 기술과 경제 무역의 협력에서 상호 보완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윈윈에 기초하여 신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동아시아 지역이 하루빨리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 기술에 힘입어 새로운 뉴그린 물결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 공동발전이라는 목표 하에서 손을 잡고 경제기술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한중일 환황해협력 매커니즘이 신에너지 혁명과 저탄소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의 원만한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키타카 키미히사(橘高 公久) 일본 경제산업성 쿄슈경제산업국 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쿄슈대표단을 대표하여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며칠 동안 날씨가 화창한 엔타이시에서 엔타이시 정부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큐슈 산학관에서 100명 정도의 대표단을 조직하여 마츠오 단장님과 함께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 또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중국 주최측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어제 각 포럼에서 매우 충실한 연설을 해주시고 의견을 표현해온 대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빌려 중국 상무부 천지엔(陳建) 부부장님, 과학 기술부 왕치밍(王啓明) 참서관님, 한국 지식경제부 서석송(徐錫崇) 통상협력정책관님, 그리고 중국 상무부 송야오밍(宋耀明) 부사장님에게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둥성 리자오치엔(李兆前)부성장님, 옌타이시 장지앙팅(張江汀) 시장님을 비롯한 산둥성 대표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회의의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은 9번째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입니다. 내년엔 일본에서 제10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난 9년 동안 아시아, 환황해 지역은 경제가 대외적으로 발전되고 세계 경제 속에서 발전을 이끄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황해 지역은 무역, 인적교류 그리고 물류 등의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의가 환황해 지역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아시아와 세계지역간 교류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의 침체 배경하에 조기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시기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도 기념할만한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가 중심이며, 물론 다른 주제도 있습니다. 이 회의 주제들은 각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중점으로 해서 각 분야 협력을 추진하여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영향력이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에너지의 절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각 포럼의 책임자, 특히 큐슈 지역의 참석자들이 비즈니스 포럼에서 마츠오 신고(松尾 新吾) 단장님이 축사한 것과 같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각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신뢰관계를 강화해 본 지역을 세계 경제와 환경 보호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이라는 주제를 놓고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인적 등의 각종 교류가 마츠오 신고(松尾 新吾)회장님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

다. 물론 마츠오 회장님도 발표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는 제1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큐슈지역을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의 시범구역으로 하여 전 세계에서 몇몇한 지역으로 만들 고자 합니다. 조금 후에 키타하시 켄지(北橋 健治) 키타큐슈시 시장님이 상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릴 테니 저는 이번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10회 환황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잘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의의 원만한 성공과 한중일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서석송(徐錫崇)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통상협력정책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비즈니스 포럼, 대학총장님과 교수님의 교류, 구매사절단의 동향 등을 보았는데 매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한국, 중국, 일본분들이 구별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확연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국 대표단이지요? 오른쪽이 일본분, 왼쪽이 한국분 들이신데 아무리 봐도 제 눈에도 3개 국적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이 회장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90%이상 구분해낼 수 있다고 자 신하는 분이 있을까요? 노란 피부, 검정머리 등 우리의 공통점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통점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특히 산동이라고 하는 곳은 동양의 유명한, 또 지금까지 유구하게 내려오는 철학의 본산입니다. 공자, 맹자, 순자가 전부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전통이 면면히 대한민국에 살아있고 일본의 교육에서도 연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유학을 하신 분 들이 오천원권, 천원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빈도 높게 사용하는 돈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공통점이 중국, 일본, 한국 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다지 똘똘 뭉쳐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연유도 있고, 일정기간 불행했던 잊고 싶은 기억들도 남아있기에 서로 활짝 웃 는 얼굴로 대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 세계 지구본을 놓고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좀 똘똘야 살아 갈 길이 있지 않는가, 반드시 운명이라거나, 필수라거나 하는 문학적 표현이 아 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

니다. 강조말씀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뚝뚝 뭉쳐 살고 아프리카도 50개가 넘는 나라가 뚝뚝 뭉쳐 행동합니다. 심지어 별다른 관계가 없는 나라들도 특정 이름을 붙여서 함께 공동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의 큰 나라들이라고 혹자는 이야기하지만 여기를 동쪽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그다지 달가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서쪽 사람들이 봤을 때 동쪽이지요.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극서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극동에 위치한 땅들은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경유야 어찌되었던 경제력에 있어서 세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가 놀라고 두려워할 규모입니다. 우리가 합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합치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다양성을 희생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통의 목표, 이뤄내야 하는 성과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500분 넘게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대학 교수님과 총장님, 기업과 연구소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어마어마한 한중일 3개국의 장점인데 반면 비능률도 높습니다. 이대로 8,9 번을 해왔는데 10 번째도 이렇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동양적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 믿음,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전에 술이라도 한잔 기울인 다음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일을 도모하는 오래된 습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비능률은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룹에도 불구하고 비능률이 너무 높아서는 안되며 기대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합니다. 운명, 필수라거나 하는 추상적 용어가 아니라 선택의 길로 3국이 좀더 가까워지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체온으로 감지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분명하며 딱 한가지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지금처럼 특히 어려운 때 대학, 연구소, 심지어 기업과 우리정부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은 다음에 발전이 있으므로 우선 살아남고 더 발전하여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 후배들에게 더 쓸모있고, 아름답고, 우아한 조직, 나라를 남겨준다는 것이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숙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공통점이 많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3개국이 조금 더 힘을 합쳐야 할 것이며 힘을 합치는데 있어서 비능률적 요소가 지난 9년 간 많았던 것은 사실이므로 다시한번 더 생각해보면서 기대효과가 더 높은 쪽으로, 그러나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큰 의미만큼 그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록 하자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은 분명합니다. 선택의 길의 방향이 정해진 것은 확실하므로 남은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될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자신이 속한 기관, 조직, 더 나아가 나라가 더 크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제안의제

【한국측】 제안사항

	제안 사항	내용
1	한중일 녹색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p>(제안자·기관명) 宋成基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기업연구센터장)</p> <p>(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성장 동력인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를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 ○ 환황해 회의 프로그램에 녹색 비즈니스 교류회 설치를 제안 ○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3국의 녹색 관련 기업들에 관한 조사를 통해 DB정보를 공유하고, R&D 연구 인력들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공동연구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2	한중일 자원순환 대책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p>(제안자·기관명) 安希慶 (국가청정생산자원센터 전문위원)</p> <p>(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한중일이 함께 자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 ○ 천연자원은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폐제품 속의 자원을 회수하고 순환시킴으로써 다가오는 자원고갈위기를 완화할 수 있으며, 폐기 처리 과정의 유해금속 배출도 개선 가능 ○ 3국의 자원순환 추진을 위한 협력체제 구성 및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함 ○ 3국의 자원 순환 협력 체제는 각 국가별·지역별 2차 자원 수급 현황과 기술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자원 광종별로 환경적 이면에서도 경제적인 재자원화 방안을 도출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함
3	환황해 대중교통운송 인프라 구축	<p>(제안자·기관명) 李承律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p> <p>(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경제권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적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한중일 3국간에 물자와 자금과 인력이 자유롭게 대량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운송 인프라 구축이 필요 ○구체적으로는 한일간 해저터널 및 한중간 해저터널을 동시 소통, 연계할 수 있는 고속철도망을 설비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신성장 대동맥을 건설 ○ 3국간 산학관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과제

【중국측】 제안사항

	제안 사항	내용
1	환황해 한중일 서브지역 협력	<p>(제안자 · 기관명)</p> <p>옌자오완(闫兆万) 산둥성 상무청 부청장</p> <hr/> <p>(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한중일서브지역 협력을 심화 ○ 중국 대외개방 최적화 니즈에 대응 ○ 한중일 경제협력에서의 산둥성 역할 강화 ○ 산둥반도의 해양경제구 발전전략을 실시 ○ 산업상호협력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 사업투자를 추진 - 서비스업 개방을 같이 확대 - 농업분야의 협력을 같이 강화 - 산둥지역에서 국가급 R&D센터 구축(IT정보, 바이오 그리고 신소재, 신에너지 및 해양종합개발 분야 등)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협력을 강화
2	한중일 정보 플랫폼 및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매커니즘 구축	<p>(제안자 · 기관명)</p> <p>李纁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처장)</p> <hr/> <p>(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간 경제, 정보의 교류와 기술 이전 및 기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이전 가능한 기술 및 제품을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포럼에서 중국 측은 먼저 60개 기업이 기술 수요정보를 제시 - 한중일 기술 수급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도 관련기업이 기술적 수요와 제3자에게 이전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정보를 수집 ○ 한중일 3국 산학연 공동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매커니즘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정책도입, 서비스 등의 면에서 3국 산학연 공동개발의 지원 매커니즘의 구축

【큐슈측】제안사항

	제안사항	내용
1	환경 비즈니스전 에코 테크노를 활용한 국제 환경 비즈니스의 진흥	<p>(제안자·기관명)사단법인 서일본산업무역컨벤션협회</p> <p>(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슈 국제 산업 교류의 GATEWAY 기타큐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큐슈의 산업고도화와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2) 우수한 입지와 국제 컨벤션 구역을 자랑하는 기타큐슈시 ○ 환경 비즈니스 견본시 「에코테크노」의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등의 환경 정책과 연동한 전시회의 개최 2) 국제회의와 전국 규모의 대회를 다수 병행 개최 3) 국제 환경비즈니스의 장으로서도 확실히 실적을 쌓음 ○ 에코 테크노의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9 계획:10월21일(수)~10월23일(금)개최 2) 테마: 국제환경비즈니스와 지구온난화 방지
2	환경해권 대학제휴에 의한 인재육성	<p>(제안자·기관명)후쿠오카대학,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신아시아인재·기술협력기구(NACS)</p> <p>(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해 지역의 대학이 제휴하여 자신있는 분야를 토대로 하여 세미나, 체험적 학습을 실시. ○ 우선 일본의 대학에서 중국, 한국의 학생, 사회인을 대상으로 실시. ○ 2009년도 사업으로서 「환경」, 「리사이클」 등을 테마로 후쿠오카 대학 자원환경·환경제어시스템 연구소가 기타큐슈 에코테크노 실증연구지역에서 폐기처리기술,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수처리 기술 등의 체험학습을 실시.
3	환경·리사이클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교류의 확대·심화에 대한 협력(K-RIP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p>(제안자·기관명)큐슈지역환경·리사이클산업교류플라자 (K-RIP)</p> <p>(구체적 내용)</p>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클러스터간(KICOX ECO사무국·K-RIP)에 있어 MOU 체결을 통한 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連市(대련시)와 K-RIP와 MOU체결을 통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JETRO/RIT(지역간교류 K-RIP와 중국 遼寧省(랴오닝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遼寧省(랴오닝성) 및 大連市(대련시)·瀋陽市(선양시)·중국 정부 관계기관 등의 협력 ○ 2010년 1월 중국 환경비즈니스 미션(大連市(대련시), 瀋陽市(선양시)예정)에 대한 협력
4	동아시아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의 추진	<p>(제안자·기관명)큐슈대학</p> <p>(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호수정화」, 「도시의 저탄소화」, 「주거·사무실의 실내공기 환경 개선」, 「임해도시부에 풍력 에너지 보급 촉진」 등 한중일 공통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지원
5	환경해 지역의 대학원생을 위한 집중강의와 연구 회의 개최	<p>(제안자·기관명)佐賀(사가)대학</p> <p>(구체적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해 지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 교육연구교류의 구체화 <p>(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중국·한국 등의 대학에서 전문분야가 같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주일 정도 단기형 공동 수업·연구를 개최함. 참가학생은 수강함과 동시에, 서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토의를 함. ○ 학생은 이 기간의 학습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음 ○ 2009년에 개최하는 학술전문분야는 식품화학, 복지 2분야

6	아시아 저탄소화센터 창설	<p>(제안자·기관명)키타큐슈시</p> <p>(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키타큐슈시는 일본 정부로부터 환경모델도시로 선정되어 키타큐슈시 환경모델도시 행동 계획을 책정 ○ 이 계획의 주요 사항 중 하나로 아시아에서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시아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거점으로서 2010년도,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를 창립할 예정 ○ 이 센터는 ①시내 기업의 기술이전·교류, ②전문인재 육성, ③조사연구·정보발신 기능을 보유함
7	환경해지역 환경 분야의 경제·기술·인적교류의 활성화	<p>(제안자·기관명)큐슈경제산업국</p> <p>(구체적 내용)</p>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슈·중국 환경세미나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회 큐슈·중국산업기술협의회(2008년11월)에서의 제기(환경분야에 대한 협력의 심화·확대), K-RIP와 大連市와의 환경산업 교류에 관한 MOU체결에 입각하여 2010년 1월, 大連市에서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경험의 이전과 협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슈·한국 환경비즈니스 제휴추진사업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2008년 6월)에서의 제안(큐슈와 한국 남부와의 초광역 경제제휴모델의 책정), 동 모델 책정조사(2008년도 실시)에 입각하여, 2009년도 환경 분야에 있어서 비즈니스 제휴추진사업(환경기술·제품 내용 등에 관한 정보 교환, 전시회 상호 참가, 비즈니스 매칭)을 실시. ○ 이러한 제안에 대한 중국·한국 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참가 등)을 요청

3.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개최결과 발표문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이 7월 15일 오전에 엔타이국제 박람회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3국의 정부, 경제 단체, 기업, 그리고 전문가 등 약 204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국제 금융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국이 조율하여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경제침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것은 각국이 짊어지고 있는 주요 과제입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의 주제는 산학관 공동으로 기술전시와 교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경제통상협력을 밀접하게 하고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포럼의 구성은 축하, 기조연설, 프로젝트 프로모션 등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사단법인 큐슈경제연합회 마츠오 신고(松尾 新吾)회장님, 한국 사단법인 산학연합회 양평식(梁平植) 부회장님, 그리고 중국 상무부 아주사 송야오밍(宋耀明) 부사장과 산둥성 상무청 옌자오완(閻兆万) 부청장님이 주최측을 대표하여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keynote스피치에서 중국측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뤼칸(呂侃) 사장님이 중국 에너지 정책과 한중일 환경보호협력에 대한 스피치를 하여 3개국의 협력 및 정책 기술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는 3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K-RIP 국제비즈니스부 사카타 마사미(坂田 昌己) 회장님이 환경 비즈니스와 아시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큐슈 측 K-RIP를 주제로 하여 연설과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 클러스터 K-RIP의 계획을 발표했고, 한중일 아시아간의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협력을 추진하는데 기울였던 노력과 거둔 성과를 소개해주셨습니다. 한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하종성(河鍾聖) 청장님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프로젝트를 프로모션하는 과정에서 중국 하북성 진황도 경제기술개발구, 일본 큐슈전력 주식회사, 한국 C-MAC주식회사, 한남대학교, CIJ사 등에서 각각 신에너지 개발, 수질 분석, 환경가스센서 등 새로운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기술과 협력 니즈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 개최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이 포럼을

활용하여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각 구성원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여 좋은 사례를 만들어 협력하였으면 합니다. 기술 공동개발, 인력양성제도 교류 등을 3개국 정부의 정책으로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

환황해 과학기술포럼 개최결과 발표문

존경하는 대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과학 기술포럼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가져온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여 과학 기술 혁신의 역할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간 교류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 과기부의 실행계획 아래 최초로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로 교류와 소통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중일 3국간의 자원통합과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이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주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신기술을 보급하고 그린 절약형 사회를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제이자 한중일 3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중일 3국이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기술과 산업발전 수준이 서로 다르지만 각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협력하면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3국 대표들이 모두 이 분야에서 새로 나온 정책 관련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3국 정부에서 모두 다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기술과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과 조치가 모두 미래의 목표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위한 기초를 닦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체, 연구개발기구, 대학교의 대표자들이 에너지 절약 분야에 대한 기술프로젝트 프로모션을 해주셨는데 많은 기술 성과들이 이미 널리 응용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모션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은 협력과 합작의 방식으로 일련의 새로운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하고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제 실체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그린절약형 사회 구축을 발전 목표로 하여 환황해 지역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산학관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기술을 내놓아 산업현대화를 가속화하여 금융 위기에 대처하고 산업진작, 세계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해마다 환황해회의에서 모두 이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을 빌려 공동 관심사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환황해 지역의 과학기술 협력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3국의 정부기관, 경제단체, 산업협회, 연구소, 기업체 등 약 100명의 대표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과 과학기술관계자가 주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경제와 과학이 긴밀하게 결합된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 소통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협력을 검토하고 신기술의 보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과기부를 대표하여 대표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번 포럼을 주최한 주최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회 환황해 산학관 대학총장포럼 조직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이 자리에서 대학총장포럼의 상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5회 산황해 산학관 대학총장포럼은 중국 상무부 주관, 산둥대학, 옌타이대학 공동 주최로 한중일 3국의 45개 대학교, 123명의 대표분들 가운데 중국 대표 51명, 한국 대표 38명, 일본 대표 34명이었습니다.

포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석자 여러분들이 글로벌 경제침체 정세하에 산학관 협력과 교류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과학기술 및 과학연구성과 전개, 그리고 국제연구교류와 협력, 환황해지역 산학관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 등의 내용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생 양성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배경아래, 산학관 협력을 주제로 삼아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이런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연구하는 데 독특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정세 하에 산학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이 사회를 위한 서비스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황해 지역은 세계에서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많은 대학교, 기업 및 과학연구기관이 집중되어 확실한 인재기반과 연구개발능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환황해 지역 대학간 협력은 3국의 인력양성, 과학기술혁신, 경제번영 및 사회 진보를 추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학관 협력은 대학 자체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환황해 지역 대학 및 산업 간 협력은 각자의 특색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참석자 여러분들이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황해 지역의 대학은 서로 간의 교류와 협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글로벌 시각과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양성을 중시 업무로 환황해 지역의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과 지적 지지

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건설적인 건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경제통합발전 추세가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고 지역경제통합의 추세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산업구조가 서로 상호보완적입니다. 앞으로 인력양성과 과학연구 등의 분야를 더욱더 강화하여 산학관 대학총장포럼의 플랫폼의 강점을 충분히 살려 서로 간의 제도와 협력을 제도화, 정례화시켜야합니다.

두 번째는 환황해지역 산학관 협력 연맹을 제안합니다. 각 대학의 우위와 강점을 살려 고등교육분야의 협력성, 유연성의 장기적 협력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아시아를 세계 각국의 학생, 대학생, 교수, 연구원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한중일 3국 대학교들은 환황해 지역 경제 및 사회발전 수요에 관심을 두고 본 지역의 혁신형 경제사회 발전에 힘써 대학교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교류하고 융합시켜 산학관 협력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환황해 지역 각국 정부기관들이 관련 정책을 만들어 대학, 기업, 정부 간의 협력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일본측의 건의가 있었는데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보다 더 실질적인 교육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중일 환황해지역 관련 정부기관, 기업인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더 많은 대학과 정부관계자들이 다음 대학총장포럼에 많이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환황해 항만교통물류 경제협력포럼 개최결과 발표문

존경하는 지도자여러분, 내빈여러분, 항만교통물류 경제협력포럼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회 한중일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스케줄에 따라 항항국에서 항만교류 물류경제협력포럼을 주최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 관련 정부기관, 사회단체, 항만 교통관리부서 그리고 물류기업 등 11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 11명, 한국에서 12명이 참가해주셨습니다.

이 포럼에서 3국은 모두 13명의 대표들이 통관 편리화와 물류협력, 한중일 해저터널의 건설, 그리고 교통소송분야의 협력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다음단계의 협력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중일 해저터널의 연구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대표들이 모두 이번 포럼의 개최가 환황해 한중일 3국의 교통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하며 세계적 금융위기 공동대처에 매우 적극적 의의를 가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가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첫 번째, 3국 항만물류발전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윈윈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관환경을 개선하고 보세항구, 탱크팜, 야대 등을 이용하여 항만 물류 발전을 위한 편리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류기술 및 표준화 면에서 해결과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교통 통제, 하역대의 표준화, 컨테이너 운송의 표준화, 품질안전 표준화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객 연결 운송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섯 번째, 정부 측에서도 새로운 운송방식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 본 매커니즘의 제3세션 마지막 회의이며 회의 내용이 매우 내실있었습니다. 이번 이틀 동안 한중일 3개국 대표자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각 분과 포럼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예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주최측을 대표하여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환황해 협력은 3국 협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시작 이래 9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3국 협력을 추진하는데 탁월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환황해 협력의 틀 안에서 한중일 10개 도시 사이의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중국 요녕성은 경제기술개발구 대표단을 조직하여 일본, 한국 자유무역지역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일본과 한국에 순환경제에 관한 교류와 시찰을 행했습니다. 2005년도 중국 옌타이시와 일본 기타큐슈시는 물류, 제조, 환경보호, 광공업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일본 기타큐슈시 항만공항국이 중국 청도시 교통국 옌타이시의 항만그룹과 물류우호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업무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2006년도 중국 옌타이시와 한국 광주시가 우호교류협력관계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중국 일조시가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마련한 국제 환경인재연수, 아시아순환경제연수코스에 참가했습니다. 2007년, 2008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일본 큐슈지역 환경 및 순환산업교류센터 K-RIP도 협력 MOU를 체결했고 한국 대전충남지역중소기업청은 기타큐슈 국제IT비즈니스추진회와 MOU를 체결했고 중국 청도시, 텐진시, 일본 기타큐슈시가 각각 순환형 도시 건설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2009년도 금년 들어서 중국 대련시가 일본 K-RIP와 환경산업교류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해마다 구매사절단을 중국으로 보내어 하북성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환발해 국제 비즈니스 축제에 참석하고 중국 교통성, 상해시도 일본, 한국측과 좋은 협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국제화 지역 정세를 살펴보면 향후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통합이 심화되고 한중일 협력이 대대적으로 발전해나갈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 본 매커니즘은 중요한 역사의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미 해왔던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실질적 협력을 심화시키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어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도약하여야 합니다. 환황해 지역의 협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노력하고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제9회 한중일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원만한 성공을 선포하며, 내년 제1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Ⅳ. 보도자료 스크랩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한중일 녹색기술 협력방안' 논의

2009-07-14

2001년 이후 매년 개최,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중국 연태시에서 오는 15~16일까지 이틀간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일 국장급 정부대표(韓지경부, 中상무부, 日경산성)를 수석으로 하는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이번에 500명 이상(韓121, 中300, 日99)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해 성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이 매년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내 무역·투자·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주요행사로는 '과학기술포럼',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 포럼' 등 다채로운 학술행사와 '비즈니스 포럼', '구매상담회' 등의 기업인 행사가 진행되며, 이밖에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된다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전체회의'에서는 비즈니스 포럼, 과학기술 포럼 등 개별행사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총괄해서 보고하고, 향후 한중일 3국간 협력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는 각국이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기술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녹색기술을 한중일 3국이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전체회의'와 병행해 '비즈니스 포럼', '과학기술 포럼' 및 '정부대표자 회의'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포럼'은 ①경제무역협력 강화 ②에너지절약·환경보호 추진 ③금융위기 공동 대응 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3국간 경험관계 강화 방안 및 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과학기술 포럼'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신기술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녹색사회 건설'이라는 주제로 관련분야 전문가와 학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신기술, 신소재 관련 정보에 대해 토론하고, '정부대표자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정부대표가 참여하여 환황해 지역내 경제·기술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향후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발전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관련 중국의 기술 및 소재 등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환황해 지역의 산학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총장 포럼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한국측은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임.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녹색성장산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의 3자협상들을 활용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데 대해 한중일이 인식을 같이 할 예정이다.

<조광형 기자>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2009-07-14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한-중-일 3개국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연태시에서 15, 16일 양일간 열린다.

14일 지경부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지역내의 무역·투자·기술분야의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한-중-일이 매년 순환 개최하는 이 회의는 이번에 5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기술의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전체회의와 병행해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경제무역 협력 강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추진, 금융위기 공동대응 등 3가지 주제를 갖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여해 3국간 경험관계 강화방안 및 위기대응 방안을 의논한다.

또 올해 처음 개최된 '과학기술 포럼'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자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신기술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녹색사회 건설'이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정부대표자 회의는 환황해 지역내 경제 기술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향후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한-중-일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

15 · 16일 중국 옌타이에서 개최

2009-07-14

지식경제부는 15, 16일 양일간 중국 옌타이에서 한 · 중 · 일 국장급 정부 대표를 수석으로 하는 `제9회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매년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내 무역과 투자,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같이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 참가 121명을 비롯해 중국 300명, 일본 99명 등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전체회의 이외에도 비즈니스 포럼, 과학기술 포럼, 정부대표자 회의, 대학총장 포럼, 구매상담회 등 부대 행사가 개최되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전시회 등도 열린다.

이근형 기자 rilla@dt.co.kr

경기도, “녹색성장 위해 한·중, 한·일 터널 동시 구축해야”

경기연,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한 국제규모의 교통시설 필요성 주장

2009-07-15



◀ 제9차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 (자료사진 경기도청 제공)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일본 큐슈 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제9차 한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해저터널 및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된 세 편의 주제발표가 중국 산둥성 정부, 옌타이시 정부, 일본 큐슈 경제산업국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중 해저터널'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이 되면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 GDP의 2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한 국제 규모의 교통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중 해저터널의 중국측 연결구간인 베이징~상하이 축에만 2억 7,2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한국의 KTX, 일본의 신간선, 중국의 허시에하오(和諧號)가 연결되어 동북아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여객 및 물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큐슈여객철도주식회사 이시 요시타카(石井 幸孝) 전 회장은 '아시아 채널터널에 관한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기존 쾌속선의 소요시간이 2시간 55분이었으나 일한터널이 건설되면 1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한,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채널터널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녹색성장 측면에서 볼 때에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는 지구 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환황해지역 항만교통물류 경제협력포럼'의 한국측 대표를 맡은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회장은 "동북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 한일, 한중 해저터널과 같은 환황해 대중 교통운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16일 개최되는 전체 회의에서 3국간 산학관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축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bearman80@cbs.co.kr>

한중·한일터널 동시 구축해야

경기연 조응래 부원장,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 참석

2009-07-15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15일 개최된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한중 해저터널 및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된 세편의 주제발표가 중국 산둥성 정부, 옌타이시 정부, 일본 규슈 경제산업국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일본 규슈 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중해저터널’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이 되면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 GDP의 2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한 국제 규모의 교통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중 해저터널의 중국측 연결구간인 베이징~상하이 축에만 2억 7,2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한국의 KTX, 일본의 신간선, 중국의 허시에하오(和諧號)가 연결되어 동북아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여객 및 물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슈여객철도주식회사 이시 요시타카(石井 幸孝) 전 회장은 ‘아시아 채널터널에 관한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기존 쾌속선의 소요시간이 2시간 55분이었으나 일한터널이 건설되면 1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한,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채널터널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녹색성장 측면에서 볼 때에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는 지구 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솔엔지니어링 김한용 사장은 ‘한중일 해저터널 건설기획단 구성 및 운영제안’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한중,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가 국가별로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공동연구체제로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한중, 한일 해저터널 공동추진기획단 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환황해지역 항만교통물류 경제협력포럼’의 한국측 대표를 맡은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회장은 동북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 한일, 한중 해저터널과 같은 환황해 대중교통운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16일 개최되는 전체 회의에서 3국간 산학관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축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한·중, 한·일 터널 동시 구축해야

경기연 조응래 부원장,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 참석

2009-07-15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15일 개최된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한중 해저터널 및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된 세 편의 주제발표가 중국 산둥성 정부, 옌타이시 정부, 일본 규슈 경제산업국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일본 규슈 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중해저터널'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이 되면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 GDP의 2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한 국제 규모의 교통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중 해저터널의 중국측 연결구간인 베이징~상하이 축에만 2억 7,2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한국의 KTX, 일본의 신간선, 중국의 허시에하오(和諧號)가 연결되어 동북아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여객 및 물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슈여객철도주식회사 이시 요시타카(石井 幸孝) 전 회장은 '아시아 채널터널에 관한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기존 쾌속선의 소요시간이 2시간 55분이었으나 일한터널이 건설되면 1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한,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채널터널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녹색성장 측면에서 볼 때에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는 지구 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솔엔지니어링 김한용 사장은 '한중일 해저터널 건설기획단 구성 및 운영제안'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한중,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가 국가별로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공동연구체제로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한중, 한일 해저터널 공동추진기획단 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환황해지역 항만교통물류 경제협력포럼'의 한국측 대표를 맡은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회장은 동북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 한일, 한중 해저터널과 같은 환황해 대중교통운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16일 개최되는 전체 회의에서 3국간 산학관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축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자료문의 경기개발연구원 031)250-3591]

<김주홍 기자 -juhong-@hanmail.net>

경기도, 한중·한일터널 동시 구축해야

일본 큐슈 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개최

2009-07-15

한중 해저터널 및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된 한,중,일 세 편의 주제발표가 중국 산둥성 정부, 엔타이시 정부, 일본 큐슈 경제산업국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산둥성 엔타이시에서 15일 개최된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일본 큐슈 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중해저터널'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이 되면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 GDP의 2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한 국제규모의 교통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중 해저터널의 중국측 연결구간인 베이징~상하이 축에만 2억 7,2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한국의 KTX, 일본의 신간선, 중국의 허시예하오가 연결되어 동북아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여객 및 물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큐슈여객철도주식회사 이시 요시타카 전 회장은 '아시아 채널터널에 관한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기존 쾌속선의 소요시간이 2시간 55분이었으나 일한터널이 건설되면 1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한,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채널터널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녹색성장 측면에서 볼 때에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는 지구 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솔엔지니어링 김한용 사장은 '한중일 해저터널 건설기획단 구성 및 운영제안'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한중,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가 국가별로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공동연구체제로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한중, 한일 해저터널 공동추진기획단 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황해지역 항만교통물류 경제협력포럼'의 한국측 대표를 맡은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회장은 동북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 한일, 한중 해저터널과 같은 환황해 대중교통운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16일 개최되는 전체 회의에서 3국간 산학관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축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박한영 기자>

경기연, 한중 한일터널 동시 구축해야..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발표

2009-07-15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15일 개최된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한중 해저터널 및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된 세 편의 주제발표가 중국 산둥성 정부, 옌타이시 정부, 일본 규슈 경제산업국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일본 규슈 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중해저터널’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이 되면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 GDP의 2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한 국제 규모의 교통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중 해저터널의 중국측 연결구간인 베이징~상하이 축에만 2억 7,2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한국의 KTX, 일본의 신간선, 중국의 허시에하오(和諧號)가 연결되어 동북아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여객 및 물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슈여객철도주식회사 이시 요시타카(石井 幸孝) 전 회장은 ‘아시아 채널터널에 관한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기존 궤속선의 소요시간이 2시간 55분이었으나 일한터널이 건설되면 1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한,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채널터널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녹색성장 측면에서 볼 때에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는 지구 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솔엔지니어링 김한용 사장은 ‘한중일 해저터널 건설기획단 구성 및 운영제안’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한중,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가 국가별로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공동연구체제로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한중, 한일 해저터널 공동추진기획단 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환황해지역 항만교통물류 경제협력포럼’의 한국측 대표를 맡은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회장은 동북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 한일, 한중 해저터널과 같은 환황해 대중교통운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16일 개최되는 전체 회의에서 3국간 산학관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축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윤청신 기자ilgankg@hanmail.net>

“한·중-한·일 해저터널 동시 구축해야”

2009-07-15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 한·중 해저터널과 한·일 해저터널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열린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중해저터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이 되면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 GDP의 2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규모의 교통시설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중 해저터널의 중국측 연결구간인 베이징~상하이 축에만 2억72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다"며 "한국의 KTX, 일본의 신간선, 중국의 허시에하오(和諧號)가 연결돼 동북아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여객 및 물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슈여객철도주식회사 이시 요시타카(石井幸孝) 전 회장도 '아시아 채널터널에 관한 고찰'이라는 발제를 통해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쾌속선의 소요시간이 2시간55분이지만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1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채널터널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솔엔지니어링 김한웅 사장은 '한·중·일 해저터널 건설기획단 구성 및 운영제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중,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가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동추진단을 결성하는 등 공동연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회장은 “동북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 한·일, 한·중 해저터널과 같은 환황해 대중교통운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16일 개최되는 전체 회의에서 3국간 산학관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축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하는 회의이다.

이날 회의는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일본 규슈 경제산업국 공동 주최로 열렸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한·중, 한·일 해저터널 동시 구축해야”

경기연 조응래 부원장,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서 주장

2009-07-16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지난 15일 개최된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한중해저터널 및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된 세 편의 주제발표가 중국 산둥성 정부, 옌타이시 정부, 일본 규슈 경제산업국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일본 규슈 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중해저터널’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이 되면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 GDP의 2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한 국제규모의 교통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중 해저터널의 중국측 연결구간인 베이징~상하이 축에만 2억 7,2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한국의 KTX, 일본의 신간선, 중국의 허시에하오(和諧號)가 연결되어 동북아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여객 및 물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슈여객철도주식회사 이시 요시타카(石井 幸孝) 전 회장은 ‘아시아 채널터널에 관한 고찰’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기존 쾌속선의 소요시간이 2시간 55분이었으나 일한터널이 건설되면 1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한,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채널 터널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녹색성장 측면에서 볼 때에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는 지구 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솔엔지니어링 김한용 사장은 ‘한중일 해저터널 건설기획단 구성 및 운영제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한중,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가 국가별로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공동연구체제로의 전환과 구체적 실현을 위한 한중, 한일 해저터널 공동추진기획단 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황해지역 항만교통물류 경제협력포럼’의 한국측 대표를 맡은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회장은 동북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 한일, 한중 해저터널과 같은 환황해 대중교통 운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16일 개최되는 전체 회의에서 3국간 산,학,관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축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다.

<김춘성 기자>

“동북아 경제권 통합위한 한중일 해저터널 공동추진기획단 결성”

2009-07-16

동북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선 한일, 한중 해저터널과 같은 환황해 대중교통운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저터널 공동추진기획단 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회장은 15일 중국 오탁이시에서 개최된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동북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 한일, 한중 해저터널과 같은 환황해 대중교통운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16일 개최되는 전체 회의에서 3국간 산학관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에는 한중 해저터널 및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된 세 편의 주제발표가 중국 산둥성 정부, 오탁이시 정부, 일본 규슈 경제산업국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일본 규슈 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중해저터널’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이 되면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 GDP의 2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한 국제규모의 교통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중 해저터널 중국측 연결구간인 베이징~상하이 축에만 2억7,2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한 한국의 KTX, 일본의 신간선, 중국의 허시에하오(和諧號)가 연결되어 동북아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여객 및 물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슈여객철도주식회사 이시 요시타카 전 회장은 ‘아시아 채널터널에 관한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기존 쾌속선의 소요시간이 2시간 55분이었으나 일한터널이 건설되면 1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일한,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채널터널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녹색성장 측면에서 볼 때에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는 지구 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솔엔지니어링 김한웅 사장은 ‘한중일 해저터널 건설기획단 구성 및 운영제안’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한중,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가 국가별로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공동연구체제로의 전환과 구체적 실현을 위한 한중, 한일 해저터널 공동추진기획단 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축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김창석기자 edukim@kyungdoilbo.com>